

“신발값 안 올리니 매달 적자지만 저희가 손해봐야 장애인이 웃어요”

문현2동 선형상사
백 호 정 대표

“장사를 하더라도 욕심 부리지 않는다. 베풀더라도 공짜로 하지 않는다”.

수순한 사무실 탁자 위에 ‘오사가 상인들의 기본철학’이라는 경구가 눈에 띄었다. 이문을 남겨야 하는 장사꾼에게 어찌 보면 일찌기 발린 표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선형상사의 백호정(57) 사장에게 이 글귀는 그가 신발 산업에 뛰어들 이유이자 목표이기도 하다.

백 사장은 지난 10일 자신이 만든 신발 50족을 장애인 50명에게 기증해 화제가 됐다. 신발 50켤레가 무슨 대수일까 싶지만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0만원에 달한다. ‘명품 신발’이기 때문이다. 발이 뒤물리고 변형된 장애인에게 최고의 명품신발은 불편한 몸을 기능적으로 보완해 가장 편안함을 주는 신발이고, 그런 신발은 이 세상에 단 한 켤레만 존재한다. 백 사장은 바로 그런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다.

장애를 지닌 부친은 평생 구두만 만든 구두장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처럼 ‘구두발’은 먹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부친이 운영하던 신발 공장이 부도가 났고 엄격결에 빚더미 공장을 넘겨 받았다. 그때 나이 서른. 사무실 구석에서 숙식하며 억척스럽게 매달린 덕에 1년 4개월 만에 빚을 모두 갚았다. 그리고 1989년 4월 남구 문현2동에 지금의 선형상사를 설립했다.

선형상사는 신발을 만들기 앞서



백호정(왼쪽) 대표는 지난 10일 장애인 신발 50켤레(2000만원)를 기증했다.



백호정(맨 왼쪽) 대표가 장애인 신발의 최종공정으로 신발 외피와 밑창을 부치는 작업실에서 구두 장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술력 세계1위 장애인 맞춤형 기능신발 제작업체

“구두명인 선친도 장애인… 이윤 쫓아 사업하진 않아”

최근 장애인신발 50켤레 기증 “구두학교 설립이 꿈”

신발의 틀인 신발골(shoelast)를 만드는 회사다. 제조업체에 비유하면 금형을 뜨는 곳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유명브랜드 신발 제조업체들에 신발골 납품을 독점하며 순식간에 업계 선두에 올랐다.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평생 남의 신발을 만들면서 장애인인 자신은 좋은 신발을 신어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부친이 떠올랐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신발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독일 하노버의 장애인구두학교를 찾았다. 꿈꿨던 신발 제작에 가장 중요한 골격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다. 이게 기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이후 구두도시로 유명한 이탈리아 비제바노와 밀라노로 가 구두장인들에게서 신발 소재에 관한 기술과 인목을 익혔다.

2006년 이런 노력 끝에 개개인의 발에 꼭 맞는 최첨단 신발골(라스트) 제조기술을 개발했다. 3D스캐너로 발의 모양을 측정하고 거기에

추출된 데이터를 디지털 가공기에 입력해, 주문자의 발과 똑같은 인체공학적인 신발골을 선택했다. 이러면 세상에서 하나뿐인 ‘내 발을 위한 맞춤형 신발’이 탄생된다. 백 사장은 “이런 디지털 입력 기술을 보유한 곳은 전 세계에서 선형상사가 유일하다”고 한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벌그룹 회장부터 추신수, 최정호 등 세계적 스포츠스타들까지 ‘명품신발’을 맞추기 위해 그를 찾아왔다. 2010년에는 미국군성으로부터 감사장도 받았다. 파병 등으로 장애를 입은 제대미군에게 맞춤 신발을 만들 준 게 입소문이 퍼진 결과였다.

이정돈도 꽤 큰 돈을 만졌을 정도인데 회사의 매출은 한해 20억원 정도에 그친다. 2명의 구두장인을 포함해 직원은 20명 정도. 신발 공정 자체가 복잡하고 더더 하루에 많아야 1~2켤레 밖에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맞춤신발은 대량생산 자

제가 불가능하다. “돈 벌 생각이었다면 신발값을 올렸겠조. 그러면 매출도 늘거구요. 하지만 그러면 형편 어려운 장애인들이 저희 신발을 살 수 있을까요?” 회사가 매출을 올릴 수 없는, 아니 올리지 않는 이유다. 대기업이나 벤처투자자로부터 무수한 투자 제의를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한다. “신발값이 오른다”는 게 이유였다.

백 사장은 여태 정부로부터 많은 상과 표창을 받았다. 그 가운데 그가 가장 뿌듯해 하는 게 2011년 명문장수기업상과 2012년에 받은 국제청장상이다. 한 우물만 파고 이윤을 쫓지 않았음을 인정받아서다. 백 사장은 매년 남구청을 찾아 수백만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아낌없이 냈지만 근래들어 기부는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장애인신발 만드는데 매달 적자만 600만원을 뺐다. 회사가 적자를 렀다는 것은 신발값을 올리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는 그만큼 장애인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죠.” “적자고 곧 기부”인 역설적인 표현이다.

“돈은 버는 만큼 들어오고 또 들어오는 만큼 버는 법입니다. 들고 돌아 돈이라고 하잖아요. 제 꿈요? 구두 만드는 장애인학교를 설립하는 게 남은 목표입니다.”



힐링? 운동화 한 켤레면 충분

퇴임후 걷기 매료… 회원 1400명 동호회 결성

부산시민걷기동호회 한 장 석 회장

걷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부산 시민걷기동호회(www.bcwco.co.kr) 한장석(64·문현4동) 회장은 뒤늦게 빠진 걷기의 매력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운동이라고 하죠. 야간에 이기대 해안길을 걸으면 달빛에 파도가 반짝이는 환호한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회장은 5년 전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부부가 함께 즐길 운동을 생각하다 걷기를 떠올렸다. 걷는 재미에 푹 빠져 그 해 걷기지도사 자격증도 땀다. 이렇게 좋은 걸 혼자 즐길 수 없어 2009년 인터넷 걷기동호회를 만들었다. 현재 회원이 1400명에 달한다. 이중 절반은 남구 주민들이다. 회원의 8할이 여성이고 50대 이상이 7할을 차지한다. 매주 토요일과 수요일 걷기 정모를 가진다. 그중 수요일은 야간 도보다. 이기대, 문탠로드, 봉래산둘레길 등 부산에 걸린 걷기 좋은 길은 모두 나왔다. 걷기에 이력이 붙으면서 한번에 60km를 돌아서 걷는 울트라 도보도 한 해 두 번씩 치르고 있다. 인터넷에 명예의 전당도 만들어 500km, 1000km, 2000km 등 일정 목표를 채운 회원에선 위커벤티지를 받아준다. 회원들 기록을 DB화해서 관리



회원들과 도보 중인 한장석 회장(왼쪽).

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장은 하루 8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을 해야한다.

걸다보니 몸과 마음이 맑아지고 너그러워졌고 차츰 주위를 둘러보게 됐다. 식대를 내고 남은 우수리돈과 기금을 모아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매년 각 구청에 의뢰해 학생 4명을 추천받아 5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길에 떨어진 쓰레기들이 눈에 거슬려 지난 3월부터는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는 ‘뜰터워킹’도 하고 있다.

안 내

국도 12바퀴 걸은 팔순의 도보여행가 “저와 남구 해안길 ‘힐링산책’ 어때요”

오는 5월 10일(토) ‘걷기 달인’ 남상범 선생과 함께 부산의 해안길을 걸어보세요.

올해 83세인 남상범 선생은 2005년 11월 5일부터 2013년 4월 27일까지 9년간 우리국도 해안길 12바퀴(3만km)를 두 발로 순례한 전설적인 도보여행가입니다. <본지 216호 1월 25일자 11면 소개>

선생은 지난 3월 22일 국도 13바퀴 순례를 위해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13바퀴는 총 4차로 나눠 길을 예정이며 1차 순례로 서울을 출발, 경기~충남~전라 내륙을 지나 4월 23일 현재 경남 고성외 바닷길을 걷고 있습니다. 5월 초 오투도 해군해관에서 1차 순례의 여장을 풀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외에 홍보대사이기도 한 남상범 선생과 부산의 해안길을 걸으며 모험에 가까운 여행담과 길에서 얻은 깊은 성찰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남구 주민과 부산 시민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5월 10일(토) 오전 10시
△모이는 장소 : 오투도 해파랑길안내소 광장
△코스 : 오투도~이기대~광안리~해운대 미포
△준비물 : 걷기 편한 옷차림, 음료수 및 도시락(각자 준비)
△문의 : 607-4075, 607-4065
*이 행사는 부산시민걷기동호회(www.bcwco.co.kr)에서 지원합니다.



향토굴국밥 대표 등 3인

나눔캠페인 유공자 포상

남구 작년 3억6776만원 모금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사랑의 열매 ‘희망2014 나눔캠페인’에 적극 앞장선 유공자에 대한 포상식을 지난 3월 15일 개최했다.

남구에서는 대연3동의 향토굴국밥 박영희 대표, 대연5동 못골자율방범대원 정동주씨, 대연 6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 박순중(대연6동)씨가 수상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진행된 나눔캠페인 결과 남구는 3억6776만5000원을 거둬 역대 가장 많은 성금을 거뒀다.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 신임회장에 윤병일씨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는 지난 3월 14일 남구청 대강당에서 2014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가지고 신임회장으로 윤병일(55·사진 일족)씨를 선출했다.

향후 3년간 남구협의회를 이끌 윤신임회장은 지난 13년간 바르게살기운동에 몸담아 오면서 지역사회와 여러 봉사활동에 참여해 왔다. 협의회는 이날 2007년부터 협의회 발전을 위해 일한 배도성 전 회장에게도 공로패가 전달됐다.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는 바르게 사는 주부교실, 1가정 1가훈 갖기 운동, 학교폭력근절캠페인 등 남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부산은파합창단

보홀국제합창대회 금상

남구 주민 차순남(사진)씨가 회장으로 있는 부산은파합창단이 지난날 18~22일 필리핀 보홀 국제합창페스티벌에서 시니어 부문 금상을 받았다. 50세 이상 여성으로 구성된 부산은파합창단은 2010년 4월 차순남 회장이 부산시구합창단협의회 회장을 맡은 오랜 연륜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최양성호씨 의사자증서 전달

경주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숨진 최양성호씨의 유족은 지난 2일 남구청을 찾아 의사자증서 및 의료운신인 증서를 전달받았다.

감만2동 옛 마을회관 벽화 그려 주민 호응

감만2동 주민센터는 지난 3월 11일 지역에 위치한 옛 마을회관(삼터) 벽면에 벽화를 그려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벽화는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졌고 벽화 작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김

석봉(62)씨가 그렸다. 길쭉한 미술기능인으로 IMF 이후 남구 관내 도로변 등에 많은 벽화 작품을 남겼다. 벽화가 조성된 옛 마을회관은 2층 콘크리트 슬래브 건축물로 1층은 공동화장실, 2층은 마을회관 겸 마을합터로 이용되고 있다.

말끔하게 변한 변화를 보는 주민들의 반응은 예상외로 좋았다. 벽화는 넓고 푸른 바다 풍경으로 변한 면 전체에 담았다.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그림을 감상하는 가 하면, 벽화 앞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감만2동 주민자치센터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마을에 벽화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 소리샘 색소폰 음악실

음악과 함께 내인생의 젊음을 되찾자!

- 기초부터 제대로...1:1 개인레슨, 동호인 모집
- 부산예술대 실용음악과 색소폰 전공자 레슨

광안역1번출구 한서병원맞은편 대로변위치

다음카페 : 부산소리샘 검색, 문의 010-5510-1858

공인증개사 전문학원

개강 5월1일

통근 EVENT

(선착순50명)

월25만원

수강료 특별할인

주간반 10시~1시50분 야간반 7시~10시30분(주/야 진도동일)

월	화	수	목	금
공법	민법	중개사법	학개론	공시/세법
고상철	이종근	김성수	박상우	도성욱/민재성

- ▶ 실력과 전통이 있는학원
- ▶ 전국 스타 강사진
- ▶ 시설좋은학원
- ▶ 공부많이 시키는 학원
- ▶ HD급 동영상강의 제공
- ▶ 선배들이 추천하는 학원

공인증개사 No.1

네이버

서면장원고시학원 ▼ 검색

서면장원고시학원

서면 807-8700

서면역2번, 전포역7번 출구

시립도서관 옆 부산은행 맞은편

빌로체 독서실

최고의 시설로 최선의 면학분위기 조성

- 토크 소수정예 열람실(넓고 아늑한 공간)
- 인터넷 학습실 완비(PC 4대 비치)
- 최첨단 컴퓨터 출입시스템의 완벽관리
- 완벽한 냉·난방시설, 특별 환기시설 완비
-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실외 휴게실(독서실 입구)
- 안전한 귀가길 차량운행(2회 : 새벽 12시 30분, 1시)

051-631-0733 010-2605-6184

남구 유엔로 38번길 41, 1층(유엔동 17번지 영남빌로체 상가)우암동세메스앞길 옆, 중앙하이츠 후문 옆

부경대학교 한국어교원양성과정 2기 수강생 모집

한국어교사 자격증 취득의 지름길!

- 신청자격 : 대학(원) 재학생 및 일반인
- 접수기간 : 2014. 4. 28. (월)~5. 23. (금)
- 모집인원 : 30명
- 수업기간 : 2014. 6. 2. (월)~8. 7. (목)
- 수업시간 : 18 : 30~21 : 30(매주 월~목)

부경대학교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부경대학교

상담 및 문의
051-629-6905

남구청 대강당 웨딩홀

남구는 저비용 고품격 결혼문화 확산을 위해 웨딩 문화 사업으로 구청대강당을 예식장으로 꾸며 운영중입니다. 본관 1층에 200석규모로 폐백실, 신부대기실, 265면의 넓은 주차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용지역 : 부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단체이면 누구나
- 이용시간 : 토요일 14~16시, 일요일 11시~16시(매시간 단위로 사용가능)
- 신청방법 : 결혼당사자나 혼주가 방문하여 접수
- 사 용 료 : 14만원(신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료예식

건전한 예식문화 정착과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폭죽, 비누방울, 드라이아이스, 케이크 절단 등 연출은 금지하며 예식취소시 사용예정일 7일전 전액환불하며 1일전 50% 환불 가능합니다.